수행하다 샛길 안 빠지려면 …



'불교수행요론'
박 현

염불수행을 할 때 눈물이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절을 할 때 몸이 저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약간은 신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수행요론>(바나리)은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저런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법을 담은 일종의 수행 지침서다.

예를 들어 염불을 할 때 눈물이 흐른다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맑은 소리와 크고 일정한 소리로 염불을 계속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이면 두려운 마음을 내지 말고, 절을 할 때 온몸이 떨린다고 절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지은이는 수행의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수행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때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자는 수행일기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며, 일기를 쓸 경우 먼저 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이 책은 이론보다는 실천적 이야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이론적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론적 체계도 실천을 중심으로 한다.

계율 · 기도 · 염불 · 간경 · 진언 · 참선 등 수행마다의 의의, 방법, 효과 및 수행자의 자세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수행 길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불교 및 일반 수행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불교문학 이해 길라잡이



이만 '불교문학과 사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만 교수가 편저한 <불교문학과 사상>(부흥기획 출판부)은 일반인들의 관심 밖에 놓이기 쉬운 불교문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불교문학의 이해>, <불교문학의 개설>, <불교문학평론선> 등 기존의 책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독자들에게 불교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다시 읽을 값어치가 있다. '문학을 위한 불교 언어와 사상'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불교문학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불교문학의 나아갈 길 등 모두 11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값 5천원. 김중근 기자

병 고치는 토종약초

최진규 '약이 되는…'



<약이 되는 우리 풀 · 꽃 · 나무>(전2권, 한문화)는 우리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약초 도감이나 한방서적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토종약초의 효능과 그 약초를 이용해 여러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전국의 산야를 누비며 우리 풀과 꽃 그리고 나무의 신비한 약성으로 연구하고 있는 최진규 씨.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약초 활용편과 뿌리 · 줄기 · 꽃 · 잎 · 열매로 보는 꼼꼼한 약초 사진, 약초 채취 하기 · 다듬기 · 보관 하기 요령, 약초에 얽힌 이야기가 알차고 유익하다. 값 각권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문화 속에 숨어있는 종교의 진면모

'전시회에 간 예수, 영화관에 간 부처' 김승철 지음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종교의 세계를 살핀 <전시회에 간 예수, 영화관에 간 부처>(시공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특정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는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들의 그 문화 속에 녹아 있는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도 우리 삶의 그릇 혹은 반영으로서의 문화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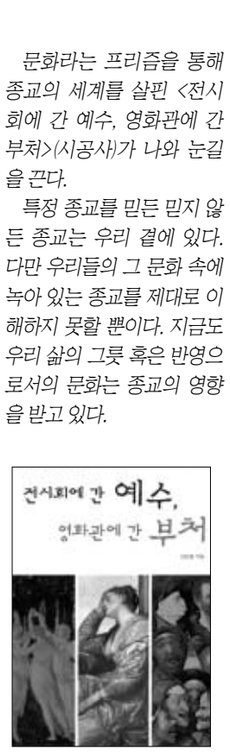


그림 · 영화로 본 종교 단면
열린 눈으로 의미 찾기

'문화 속의 종교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우리 주변의 문화를 통해 종교의 본질로 접근한다. 풍부한 인문, 예술 자료를 토대로 삶 속에 녹아 있는 참 종교, 타종교를 인정하는 열린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윤복과 고흐, 모차르트와 바흐, 영화 '고래사냥'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램브란트의 그림과 '십우도'….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본 예술가들과 작품들이다. 이렇게 친근한 문화들 속에는 종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은이 김승철 씨는 종교학자 특유의 눈으로 그 속에 녹아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모습을 짚어낸다. 그것들에는 종교의 본질, 성향, 종교인의 삶, 자세 등이 함축돼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를 보다 선명하게 머릿 속에 그릴 수 있게 한다.

영화 '고래사냥'을 보고는 현실에서도 악이 선에게 감동을 받아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샤갈의 그림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보고는 그리스도를 뱃속에 품은 성모라고 한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야부인을 비교하면서 보살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전개한다. 또한 장욱진의 그림과 최승호의 시에서는 눈사람을 통해 공(空)을 말하고, 과일을 소재로 한 유화 작품들에서는 세속적 쾌락의 무상함을 엿본다. 특히 눈사람을 통해 종교인의 자세를, 달을 통해서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묻는다. 무상(無相)의 존재인 신과 인간 관계의 문제, 신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문제, 니르시스 신화를 통한 '자기'의 문제를 고찰한다.

특정 종교만을 고집하는 사람의 경우, 지은이의 시각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마리아를 보살로 비유한 부분 등은 기독교계로부터 반발을 낳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윽박지르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종교적 의미를 찾아가는 지은이의 다원주의적 종교관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현대문제 푸는 실마리 '유식학'

고목 스님 '유식학 강좌'

"자연이란 원자 실험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도 불합리한 것인가." 대표적 신물리학자 베르느 하이젠베르그가 한 말이다. 현상계의 사물은 그 '실재'인 원자 차원에서 볼 때 합리성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을 비롯하여 현대과학이 규명한 성과들이야말로 유식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00년 전에 성립된 유식학이 이미 현대과학이 규명한 바를 광범위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신간 <유식학 강좌>(삼양)는 현대물리학의 신지식과 주로 20세기 후반부터 발표된 생물학과 진화론 등을 바탕으로 유식학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 <화두 이야기> 등을 펴낸 고목 스님. 그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은 어렵고 난해한 분야인 유식학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은이는 "유식학은 현대인과 현대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야다"고 말한다.



고도의 정보통신, 사이버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인간의 심리 문제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것이 대표적 이유다.

유식학의 이론과 사상을 실용화하여 일상 속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 이 책은, 불교라는 종교는 결코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님을 확인케 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부처님이 계신다면

근세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스님을 꼽는다면 탄허(1913-1983)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은 6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한문학을 배우기 시작해 유학과 도교학을 두루 섭렵했다. 20세 때 한암 스님과 우주 및 인생의 근본이치에 대한 서신문답을 할 정도로 출중했던 스님은,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게 된다. 출가 직후 3년간 참선수행을 한 스님은, 15년간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며 불교 내전 및 선학을 공부하게 된다. 선(禪)과 교(敎)를 두루 공부한 스님은 그 후 월정사 조실, 동국대 대학선원장, 조계종 중앙역경 연수원장, 화엄학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설법과 강연 그리고 경서들을 내놓았다.

스님은 <신화엄경합론> 47권을 비롯해 <주역선해> 3권, <능엄경> 2권, <영가집> 등 20여종의 역서들만 내놓았을 뿐 대중들을 위한 법어집을 한권도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스님이 평소에 즐겨 말씀했던 "다언(多言)은 사자(士子)의 병이 되고 번문(煩文)은 도가(道家)의 해가 된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초판 당시 인기 폭발
동서양 철학 오가며
우주관 · 인생관 피력

스테디셀러로 권하는 <부처님이 계신다면>(교림)은 엄격히 말하면 탄허 스님이 직접 쓴 저술이 아니라 한 제자가 평소에 설한 법문과 강연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한 것 등을 정리하여 엮어낸 법어집이다. 이렇게 출간된 이 책은 탄허 스님의 최초의 법어집이기도 하다. '스님에 듣는다', '스님에게 묻는다', '종교의 본질과 성격' 등 크게 3부(28편)로 구성된 이 책은, 79년 초판 당시 일주일 만에 3천권이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이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스님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확인하게 하는 이 법어집의 내용들은 불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유교 · 도교 · 기독교 등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스님만의 특유한 우주관과 인생관 등을 설파한다. 오랫동안 눈 밝은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는 두 번째 법어집이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거울	원 성	이 레
2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양 형 진	장 경 각
3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4	삭발하는 날	현 진	호 미
5	성경엔 없다	고 준 환	불 지 사
6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7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8	화두융합과 초점	고 목	삼 양
9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10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도서 안내: (02)737-0695